

세계관

# 세계관(Worldview)이란?

- 리처드 드위트: “퍼즐 조각이 맞물리듯 서로 연결된 믿음 체계”
-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 기원전 300년 무렵부터 1600년 무렵까지 서구를 지배한 믿음 체계.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 사후 서구 문화권에서 그의 믿음에 기초해 공유한 일련의 믿음들.

# 아리스토텔레스의 믿음

-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
  - 지구는 정지해 있다.
  - 달 아래 영역, 즉 (지구를 포함한) 지구와 달 사이 영역에 네 가지 원소가 있으며, 그것은 흙과 물, 공기, 불이다.
  - 달과 태양, 행성, 별을 포함해 달 위 영역, 즉 달 너머 영역에 있는 물체들은 제5원소인 에테르로 구성된다.
  - 원소마다 본질적 성질이 있고, 그것은 흔히 원소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흙 원소는 자연적으로 우주의 중심을 향하는 성향이 있다.
  - 물 원소도 자연적으로 우주의 중심을 향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 성향이 흙 원소만큼 강하지는 않다.
  - 공기 원소는 자연적으로 흙과 물 위, 불 아래 영역을 향해 움직인다.
  - 불 원소는 자연적으로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성향이 있다.
  - 행성과 별 같은 물체를 구성하는 에테르 원소는 자연적으로 완벽한 원형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 달 아래 영역에서는 움직이는 물체가 자연적으로 멈추려는 성향을 보인다.
  - 정지한 물체는 운동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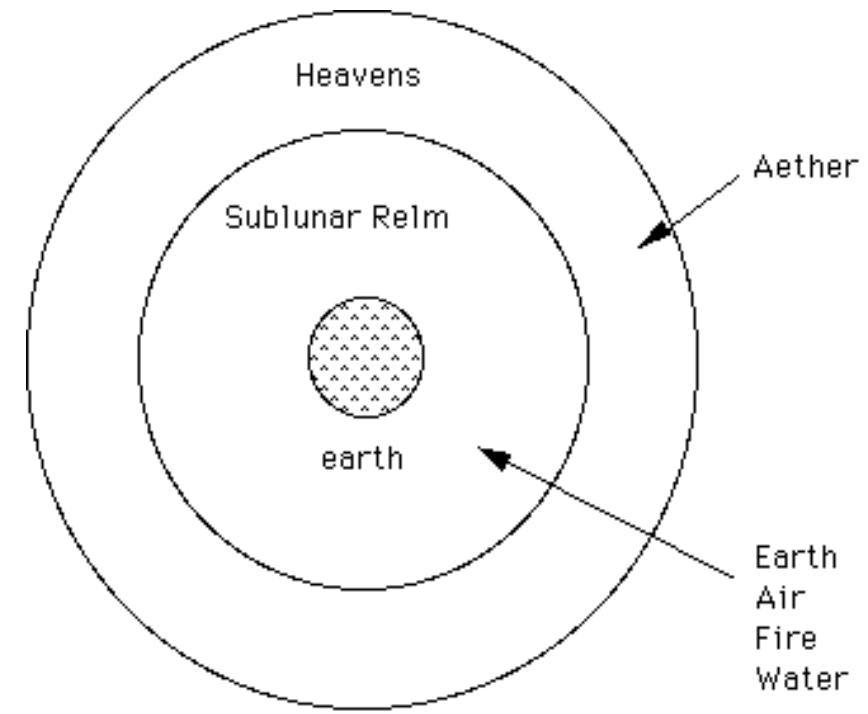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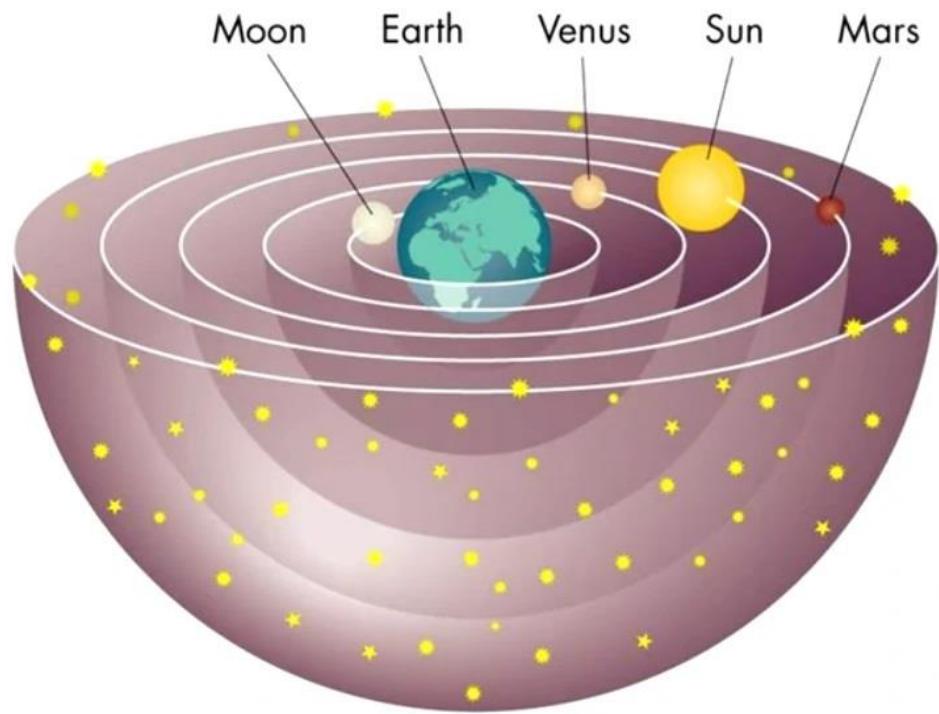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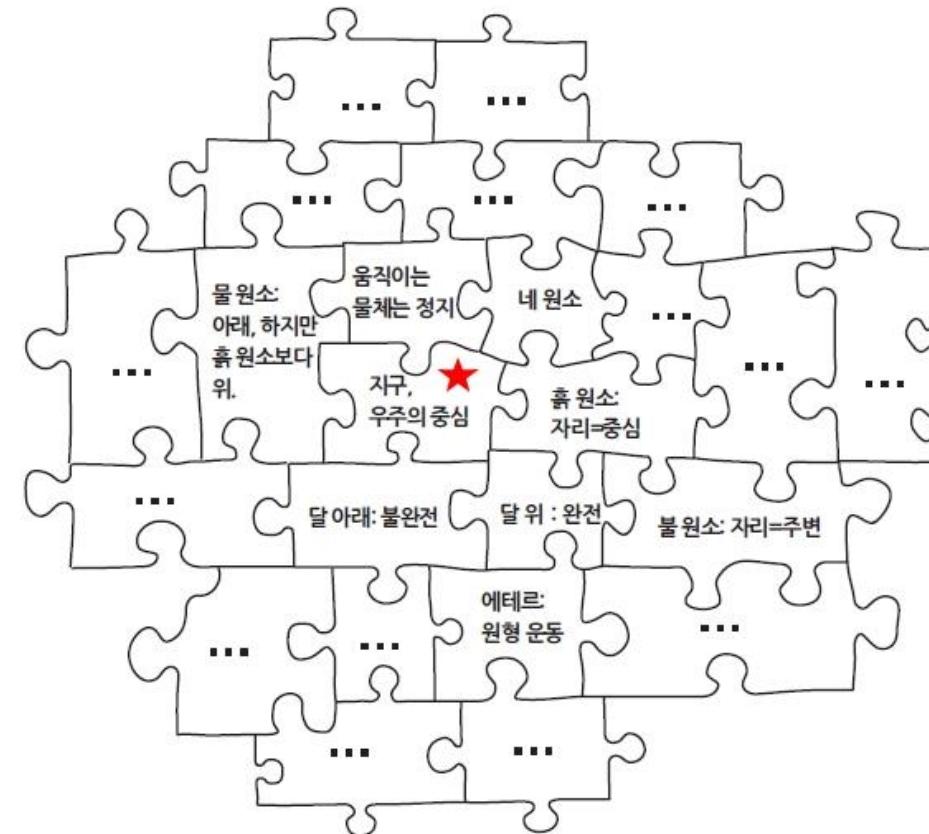


Figure 5-1

# 쇼핑 목록과 그림 퍼즐



[도표 1-2] 아리스토텔레스 믿음의 '그림 퍼즐'

# 아리스토텔레스의 믿음

-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
- 지구는 정지해 있다.
- 달 아래 영역, 즉 (지구를 포함한) 지구와 달 사이 영역에 네 가지 원소가 있으며, 그것은 흙과 물, 공기, 불이다.
- 달과 태양, 행성, 별을 포함해 달 위 영역, 즉 달 너머 영역에 있는 물체들은 제5원소인 에테르로 구성된다.
- 원소마다 본질적 성질이 있고, 그것은 흔히 원소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흙 원소는 자연적으로 우주의 중심을 향하는 성향이 있다.**
- 물 원소도 자연적으로 우주의 중심을 향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 성향이 흙 원소만큼 강하지는 않다.
- 공기 원소는 자연적으로 흙과 물 위, 불 아래 영역을 향해 움직인다.
- 불 원소는 자연적으로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성향이 있다.
- 행성과 별 같은 물체를 구성하는 에테르 원소는 자연적으로 완벽한 원형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 달 아래 영역에서는 움직이는 물체가 자연적으로 멈추려는 성향을 보인다.
- **정지한 물체는 운동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 .....

# 중심 믿음과 주변 믿음

- 태양과 달, 지구 외에 다섯 개의 행성이 있다.
- 지구는 정지해 있으며 우주의 중심이다.

# 뉴턴 세계관

-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24시간 주기로 회전한다.
- 지구와 행성은 타원형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돈다.
- 지구에는 100가지가 조금 넘는 원소가 있다.
- 물체의 고유한 행동은 대체로 외력의 영향 때문이다.
- 행성과 별 같은 물체도 지구상 물체를 구성한 것과 같은 원소로 구성되었다.
- 지구상 물체의 행동을 설명하는 법칙이 행성과 별 같은 물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

# 믿음과 증거

-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믿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가?
- 우리 세계관 자체가 틀린 것으로 밝혀질 수 있을까?

참(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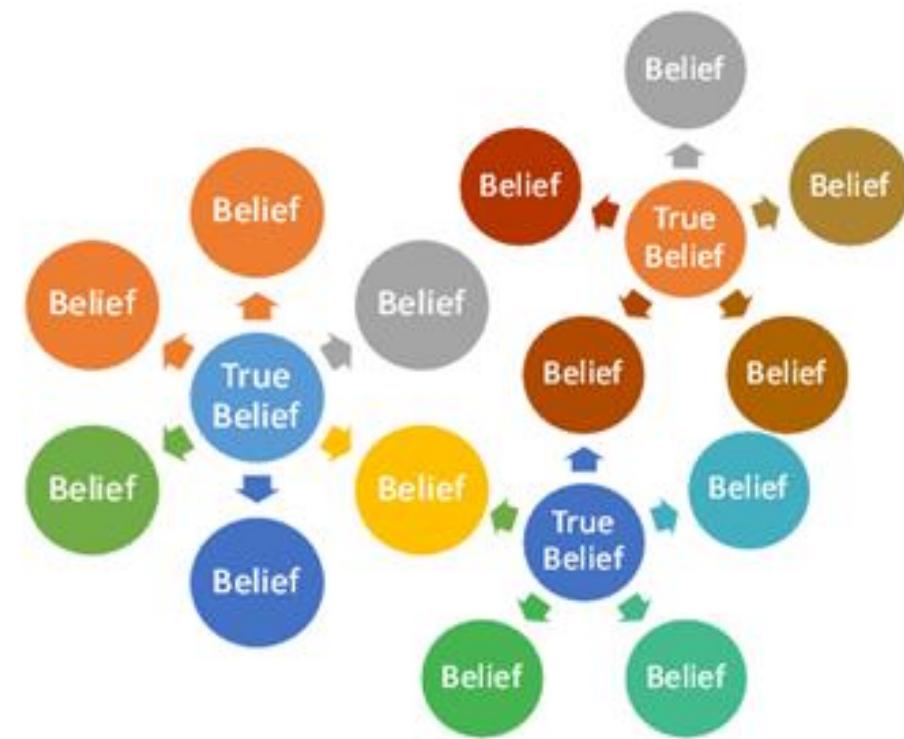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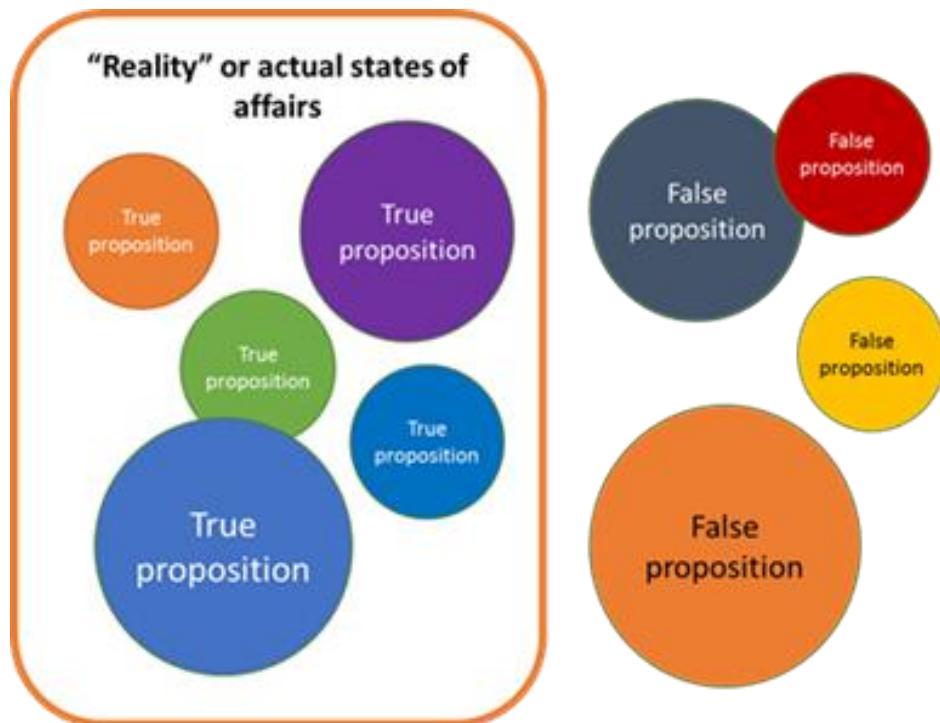
사실(fact)/믿음(belief)/참(truth)/지식(knowledge)

- 참이란 사실이 뒷받침하는 믿음?

# 참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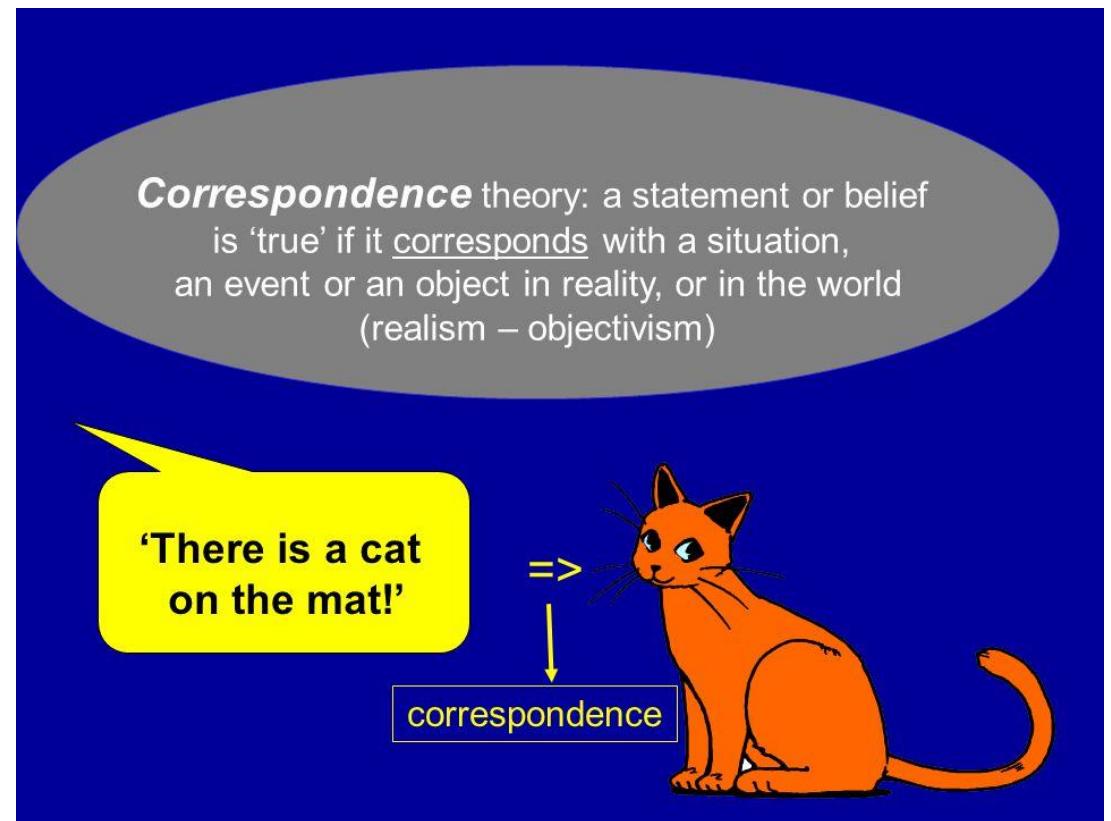
- 참인 진술 혹은 참인 믿음들을 참으로 만드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 참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어떤 진술이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과 혼동하지 말 것.

# 대응론과 정합론



# 진리대응론(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 참된 믿음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그 믿음이 실재에 대응하는 것.
- 실재란? 주관과 분리된 실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재.
- 우리의 믿음은 실재에 영향을 주지 못함.



# 진리정합론(The Coherence Theory of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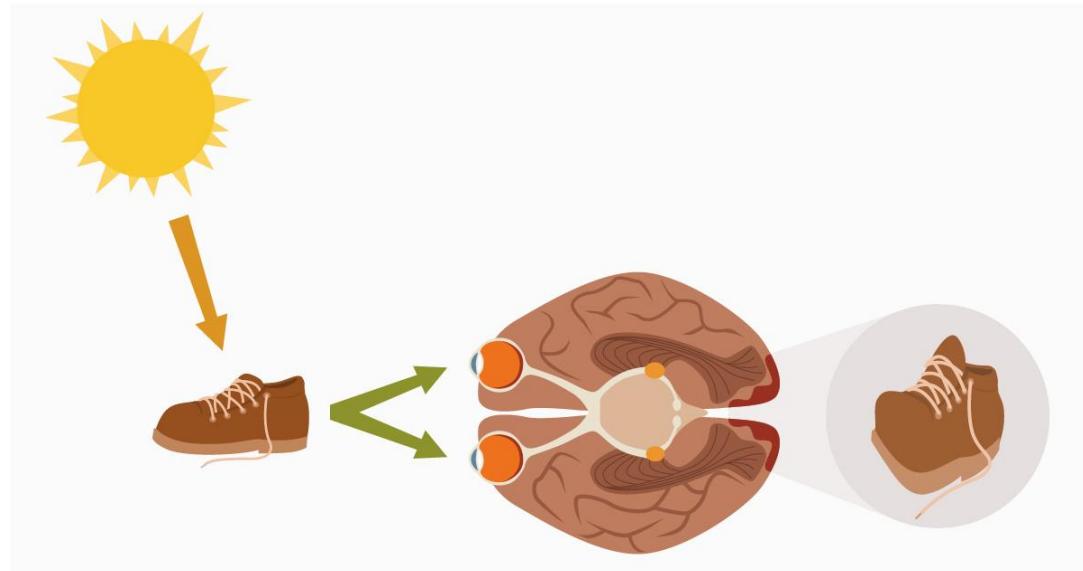
- 어떤 믿음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그 믿음이 다른 믿음과 정합하거나 일치하는 것.
- 참은 서로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다양한 변형 정합론

- 개인주의적 정합론: 참이 당사자 개인에 따라 상대적.
- 집단 변형 정합론: 어떤 집단(예를 들면 서구 과학자 집단)의 믿음과 들어맞을 때 참.

# 진리대응론의 문제점



- 표상적 지각 이론  
(Representational theory of perception)
- 우리 감각은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의 표상을 제공함.
- 문제: 표상의 정확성/ 토텔 리콜 시나리오

# 표상의 정확성 평가



- 표상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상을 표상된 대상과 비교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식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표상이 정확한지 평가할 방법이 없다.

# 토텔 리콜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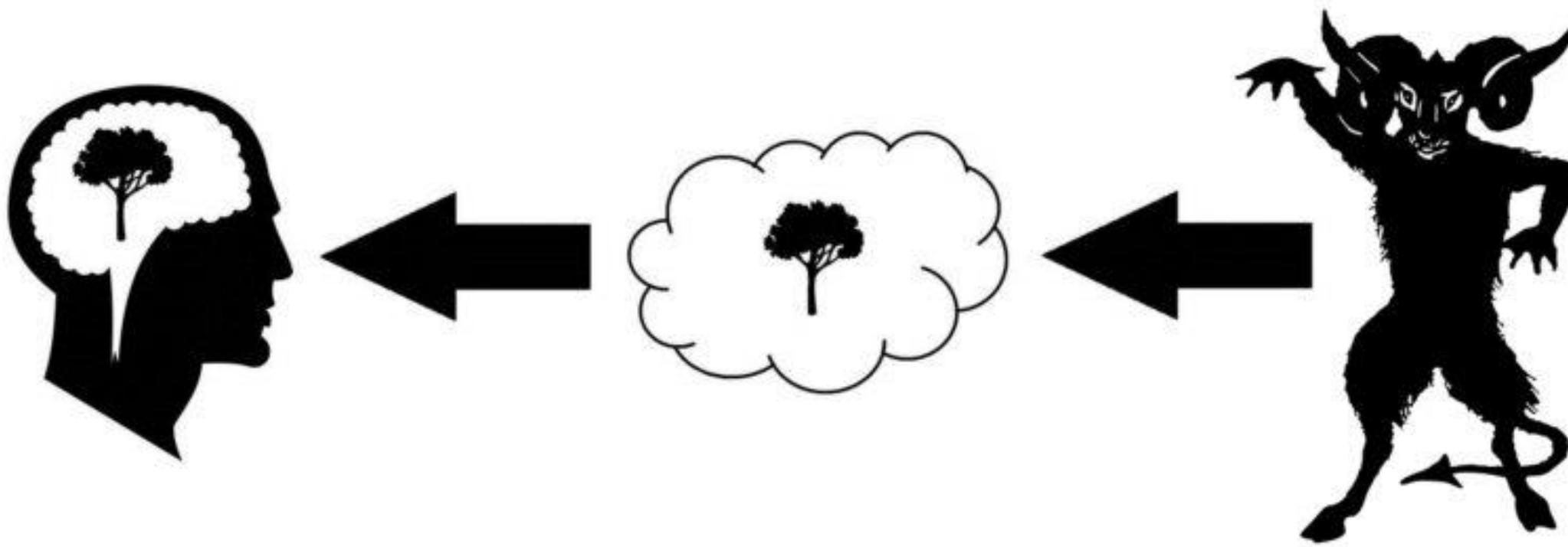


- ~~실재는 우리 믿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 실제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없다.
- 진리대응론이 옳다면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

# 진리정합론의 문제점

- 상대주의의 문제
- 집단 변형 정합론이라 해도 문제가 생김.
  - ① 집단의 믿음이 오해일 가능성
  - ② 해당 집단의 구성원 포함 기준
  - ③ 집단이 일관된 일련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

# 데카르트의 악마



# 데카르트, <성찰> 중

- ...그러므로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거짓된다고 가정한다. 망상으로 가득 찬 기억이 나에게 보여 주는 것은 모두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믿기로 한다. 아무 감각 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한다. 물체, 모양, 연장, 운동, 장소는 환영일 따름이라고 믿기로 한다. 그렇다면 참된 것은 무엇인가?
- ...나는 세계 안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하늘도 땅도 정신도 물체도 없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없다고 설득한 것이 아니었던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을 설득했다고 하면, 확실히 나는 있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능하고 아주 교활한 기만자가 있어서, 온갖 재주를 부려 항상 나를 속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나를 속인다고 하면, 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가 마음껏 나를 속이게 하라.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는 결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이리하여 여기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라는 명제는 내가 이것을 말할 때마다 혹은 정신에 의하여 파악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 그러나 토대가 될 수 있는가?
- 
- 과학은 사실들을 설명하는 참된 이론을 만드는 일?